

“개인기도시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2017년 7월 30일 주일설교

살아야 할 이유”(The Reasons for Us to Live)

오는 수요일(8월 2일)부터 전국 넥서스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미국에 있는 3백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차세대(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청년)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귀고 배우는 모임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1.5세 혹은 2세 목회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자로 섬기셨던 테라 리 전도사님이 이 모임의 회장이셔서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3백여명이 등록하는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역에서 참가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아주 큰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실 여선교회(회장: 이명숙)에 감사 드립니다. 식사 준비는 2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2시부터 5시 사이에 오셔서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는 5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도움은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녁 예배는 사흘 동안 7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첫 날에는 버지니아 연회를 섬기시는 샨마 루이스 감독님(Bishop Sharma Lewis)이 설교하십니다. 지난 6월 연회에서 루이스 감독님은 흑인 특유의 영성으로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오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샘 윤 목사님(Rev. Sam Yun)이 설교하십니다. 몇 년 전에 윤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들어 본 일이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하지만 신앙 면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 것만한 능력이 신앙 면에서 드러난다면 한인 2세 교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만한 교회가 최소한 몇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또한 믿음 좋은 1세 부모에 비한다면 2세 자녀들의 믿음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장성한 자녀를 둔 가정마다 가장 큰 걱정이 자녀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탁월한 능력이 믿음에 바탕을 둔다면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으로 인정 받을텐데, 지금은 단지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여 잘 사는 민족'이라는 인정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차세대의 신앙 교육에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큰 교회처럼 잘 짜여진 교사진도 없고 교육 시스템도 없습니다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사랑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진심과 열심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년 동안 자란 아이들을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노력하면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감사합니다.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님께' 42장(통 11)
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6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10분)
말씀묵상	한 사람이 설교 말씀을 요약하여 발표합니다. (10분)
말씀나눔	- 한 질문에 대해 15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 전체 나눔 시간이 90분을 넘지 않게 하십시오. 1.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나누어 주십시오. 2. 한국이 자살률 1위라는 통계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살과 관련하여 당신의 경험(직접, 간접)을 나누어 주십시오. 3. 생명에 대한 두 가지 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통해 그 진실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4.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고쳐야 할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있는지 반성해 보십시오. 한 가지씩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	1.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2. 사랑 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헌금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장(통 518)
주기도문	광고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찾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 기도에 몰입할 만한 자리를 찾습니다. 집 혹은 직장에서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처음 시작하는 분은 15분으로 시작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늘립니다. 목표는 '하루 한 시간'입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사귄**을 즐깁니다.
- 찬송 부르기, 경건서 읽기, 차 마시기, 찬양 듣기, 성경 읽기, 일기쓰기, 말로 기도하기, 침묵으로 기도하기, 중보 기도하기, 주기도 드리기, 사도신경 고백하기 등.
-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 순서에 신경쓰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향과 기호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매일 같은 순서로 하지 마십시오. 그 때 그 때의 영적 기산도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 시간을 채우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두고 사귄을 즐기십시오.
- '하루 한 시간'의 개인 기도는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 '전교인 성경일독' 이번 주 진도는 **사우엘기상**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일독 진도를 따라 '하루 한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 훈련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 오는 **수요일(8월 2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우리 교회에서 전국 Nexus Conference가 열립니다(목회칼럼을 참고하십시오). 교우들께서는 기도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은 CUMC의 Music Camp 준비 관계로 인하여 한어 성인 예배는 ROC에서, 어린이와 중고등부 예배는 채플에서 드립니다. 성찬은 따로 드립니다.
  - 주일학교에서는 오는 8월말부터 2017/2018 학년 동안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실 선생님들을 다음과 같이 찾습니다. 영어가 아주 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Preschool-1st Grade: 보조 교사 1명**
    - **2nd-3rd Grade: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 **4th-5th Grade: 정교사 1명, 보조교사 1명**
 주일학교 사역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현정 전도사 (4helenaim@gmail.com) 혹은 정도균 교우(xentle@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선교회에서는 예배 후에 식료품(도토리묵 가루, 컷트 미역, 완도 다시마, 간혹두, 천연꿀 등)을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모두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Centreville UMC에서 하고 있는 Back 2 School Backpack Drive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생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속이 두 칸 이상 구분이 된 백팩을 도네이션해 주시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8월 6일까지 예배당 입구에 있는 도네이션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영어권 청년부 수양회가 8월 10일(목)부터 12일(토)까지 버지니아 비치에서 열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담임목사 동정 및 심방
- 7월 31일(월) 성호진/성영일 심방
  - 8월 1일(화) 윤백진 심방
  - 8월 2일(수)-5일(토) Nexus Conference 참여

- 교우 모두가 '삼중 사귄'(Triple Communion)에 있어서 깊어지도록
- 센터빌연합감리교회, 와싱턴한인교회 그리고 체스터브룩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멕시코(김승석 선교사), 남아공(장용석/강준이 선교사), 탄자니아(박윤석 선교사), 도미니칸 리퍼블릭(전구 선교사), 아이티(김은숙 선교사)
- 육신의 질병 혹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 연합감리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위해, Lewis 감독님을 위해
- 한국과 미국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 수요일예배를 위해
- Nexus Conference를 위해

### 주일 예배

- **한어권**  
오후 2시 / 본당  
중보기도: 오후 1시 20분 / 208호
- **Youth & EM**  
오후 2시 / ROC
- **어린이 (Children)**  
오후 2시 / 213-215호

**수요 예배**  
수요일 저녁 8시/ 본당  
9월 13일 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 및 중보 기도회(토)**  
오전 6시 / 본당  
다른 요일은 개인 기도로 대신합니다.

### 7월, 8월 성경일독 진도

31일(월)	1일(화)	2일(수)	3일(목)	4일(금)	5일(토)
사우엘기상 1-4장	사우엘기상 5-8장	사우엘기상 9-15장	사우엘기상 16-19장	사우엘기상 20-24장	사우엘기상 25-31장

### ■ 주일 섬김과 봉사

- 예배: 공효선/오하나/조정호/김인애/김정규/주준호/주규리
- 바나바: 이수진/김희옥/박지나/
- 멀타: 이백호/윤석호/김애린/김원희/이유경/이애나
- 주차: 장호범/박윤반/김성식
- 도서: 허옥신/김용규/김숙영
- 성찬삭: 류수연

### 제자반

- **여성을 위한 성경필사나눔반**  
(인도: 도현주)  
수요일 / 아침 10시 / 방학
- **기도학교**(인도: 김영봉 목사)  
1기 수료후 방학
- **성경학교**(인도: 김영봉 목사)  
가을학기 개강 예정
- **제자학교**(인도: 김영봉 목사)  
가을학기 개강 예정

### ■ 8월 봉사 안내

- 안내와 헌금: 오하나/김인애
- 8월 6일: 회중기도: 김제국  
성경봉독: 이애란
- 주일 친교: 오늘: 우슬초숙  
다음주: 진실숙

### (7월 23일)

한어 예배 (KM)	167	주일학교	\$31
영어 예배 (EM)	21	주일헌금	\$378
청소년 예배 (Youth)	23	주정/월정	\$5,140
교회학교 (Sunday School)	18	십일조	\$1,160
		선교헌금	\$50
		감사헌금	\$850
		사랑헌금/기타	\$10,495
<b>합계:</b>	<b>229</b>	<b>합계:</b>	<b>\$18,104</b>

### 2017년 7월 30일 | 성령강림후 여덟 번째 주일

본당 / 2:00 pm

사회: 김영봉 목사

피아노: 이애령/오르간: 김성은

- 전주 Prelude 오르간
- 촛불 점화 Lighting the Candles 점화자
- 경배 찬송 "하늘에 계신" 635장 다같이  
Hymn of Invocatio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같이
- 개회 찬송 "거룩한 주님께" 42장(통 11) 다같이  
Hymn of Prais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Confession of Faith
- 회중 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유주현
- 성경 봉독 디모데전서 6장 7-12절 김지완  
Scripture Reading 1 Timothy 6:7-12
- 찬양 참 귀하사 사랑의 주 성가대  
Anthem
- 간증 김혜란  
Testimonial
- 설교 "살아야 할 이유" 김영봉 목사  
Sermon The Reasons for Us to Live
- 응답의 기도 다같이  
Prayer of Reflection
- 송영과 봉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2장 다같이  
Doxology & Offering
- 목회기도 김영봉 목사  
Pastoral Prayer
- 결단의 찬양 "신자 되기 원합니다" 다같이  
Hymn of Commitment 463장(통 518) Lord, I want to be a
- 축도 김영봉 목사  
Benediction
- 인사와 광고 김영봉 목사  
Greeting & Announcements

### “Sanctuary”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헌금은 예배당 안에 있는 헌금접시에 드리십시오.  
Please place your Tithe into the trays in the chapel.